

- 정부 메가프로젝트 후속 대응 특별위원회 -

제 2 차 회 의 결 과

회 의 개 요

- 일 시 : 2026. 07. 29.(수) 10:09~
- 장 소 : 의회운영 · 특별위원회 회의실(3층)
- 참석현황 : 17명
 - 특위위원(8) : 서난이 위원장, 박수형 부위원장, 강태창 위원, 나종대 위원, 송재영 위원, 이명연 위원, 임승식 위원, 한정수 위원
 - 집행부(8) : 염기남 정책기획관, 이순택 환경산림국장, 최정일 건설교통국장, 유희숙 기업유치지원실장, 양선화 미래첨단산업국장, 김철태 새만금해양수산물국장, 장윤경 총괄지원과장, 이경순 교육협력과장
 - 출연기관(1) :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 안 건
 - ① 특위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
 - ② 정부 메가프로젝트 후속 대응 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

I 회의 내용

- 특위 활동계획(안) 채택
- 정부 메가프로젝트 후속 대응 관련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 답변

Ⅱ 질의 · 답변내용

< 서난이 위원장 >

- 광주·전남·충청권과 연계한 초광역 메가프로젝트 추진 전략은 무엇인지?
 - ▶ 기업 투자 기반의 메가특구 조성을 위해 초광역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민관합동추진단을 통해 관련 전략을 마련하고 있음.
- 현대차 연계 계약학과 설치와 지역 산업인재 양성 계획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 ▶ 현재 계약학과는 설치되지 않았으나, 현대차와 협약을 바탕으로 계약학과 설치와 산학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임.
- SK 데이터센터 협약 변경 내용과 전력 문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 ▶ 데이터센터 투자 규모 확대를 위한 협약 변경을 협의 중이며, 수상태양광과 전력 문제는 아직 협의가 진행 중으로 최종 확정되지 않았음.
- 광주·전남권 반도체 산업 추진 과정에서 전북에 폐기물 처리시설만 집중될 우려에 대한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 ▶ 현재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 대응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으나,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함.
- 광주·전남이 각자의 필요에 따라 철도 노선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전북에 유리한 노선을 선제적으로 제안해야 함. 또한, 국가 철도망계획 발표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전북의 산업·물류·인구·관광 효과를 분석해 적극적으로 대응 주문
 - ▶ 광주가 광주와 서해안선을 연결하는 별도 노선을 건의했고, 국

토교통부에서 검토 중이나, 우리 도도 광주와 협의하고 전북에 유리한 연결 노선을 함께 건의하겠습니다.

- 현대차 투자 관련 51개 과제의 추진 현황과 2029년 착공 가능성은 어떠한지?

▶ 로봇, 태양광, AI 데이터센터, 수소 등 총 51개 과제를 관리하고 있으며, 전력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이나 2029년 착공 가능 여부는 확정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박수형 부위원장 〉

- 건설교통국이 기존 SOC사업을 단순 나열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부 메가프로젝트와 연계한 산업유치 및 기반시설 구축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데, 새만금 도로·철도 사업이 메가프로젝트와 어떤 연계성을 갖고 있는지?

▶ 도로·철도·공항 등 SOC사업은 국가계획 반영이 전제되어야 추진 가능하며, 기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것도 메가프로젝트 대응의 일환임. 다만 변화한 산업·투자 여건을 반영해 노선 재검토 및 국가계획 반영을 추진하겠습니다.

- 환경산림국이 용수 확보 계획만 제시하고 있는데, 메가프로젝트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용수·전력·교통 등 기반시설 지원 전략은 무엇인지?

▶ 새만금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용수와 전력 확보가 필수이며, 대규모 산업단지 구성에 대비해 국가수도기본계획 반영 등을 통해 용수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정부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 임승식 위원 〉

- 새만금 산업용수 60만 톤 확보 계획은 실제 확보 가능한 물량인지, 용담댐과 섬진강댐을 활용한 구체적인 확보 계획은 무엇인지?
 - ▶ 용담댐 활용 가능 물량은 관계기관과 검토 중이며, 국가수도기본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음.
- 재생에너지와 전력 확보 계획이 추상적인데, 발전시설·송전망·변전소 구축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 ▶ 미래첨단산업국에서 RE100 산업단지, ESS, 마이크로그리드, 송변전망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발전 위치와 송전계획은 제시되지 않았음.
- 부서별 개별 대응이 아닌 전력·용수·부지·인재 등을 총괄하는 메가프로젝트 대응 전담 TF를 구성할 계획이 있는지?
 - ▶ 기존 메가프로젝트 발굴 추진단과는 별도로 후속 대응을 위한 실무협의체 또는 전담조직 구성 방안을 검토하겠음.

〈 강태창 위원 〉

- 부서별 추진단이 각각 운영되고 있는데 사업 발굴부터 입법·예산까지 총괄하는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 있는지?
 - ▶ 기존 추진단은 국책사업 발굴 목적이며, 후속 대응을 위한 별도 조직 또는 실무협의체 구성 여부를 검토하겠음.
- 메가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특례법 제정과 예비타당성조사 대응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 ▶ 현대차 투자와 관련한 43개 특례를 전북특별법 개정안에 반영했으며, 관계부처 및 국회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음.
- 친환경 상용모빌리티 특화단지, 메가특구, AI 데이터센터 등 주요

공모사업의 추진 현황은 어떠한지?

▶ 특화단지와 메가특구는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 중이며, AI 데이터 센터는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과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 사업이 확정된 이후 용역을 추진하면 대응이 늦어지는데 선제적으로 준비할 계획은 있는지?

▶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선제 추진 일정은 아직 수립되지 않음.

< 이명연 위원 >

○ 용담댐 용수를 전북에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활용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산업용수 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 용담댐 용수는 관계기관 협의와 국가계획에 따라 배분되고 있으며, 산업용수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음.

○ 옥정호 상류 댐 등 새로운 수자원 개발을 검토할 계획이 있는지? 미래 세대를 위한 자원 확보 노력 요구

▶ 과거 논의는 확인하지 못했으나, 산업용수 확보 차원에서 관련 내용을 적극 검토하겠음.

○ RE100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비한 중장기 에너지·수자원 전략은 무엇인지?

▶ 수자원 확보를 지속 검토하고 있으며, RE100 산업단지와 분산 에너지 특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한정수 위원 >

○ 전북만의 차별화된 메가프로젝트와 성장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 방향은 무엇인지?

- ▶ RE100 산업단지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등을 활용하여 기업 부담을 줄이고, 현대차 투자와 연계한 사업 확대를 정부에 건의하고 있음.
- 현대차가 수소차 및 수소산업을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전북도 수소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수소산업 전주기 생태계 구축과 수소 전용항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 ▶ 새만금 기본계획에 수소특화산단과 수소 R&D·실증 거점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수소 전용항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검토해보겠음.
- 기후변화로 저수지와 댐의 수량이 불안정해질 수 있으므로, 산업용수 확보를 위해 해수 담수화 등 새로운 수자원 확보 방안을 검토해야 함.
- ▶ 해수 담수화 등 새로운 수자원 확보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음.
- (제안)반도체 등 다른 지역과 경쟁이 심한 산업만을 따라가기보다, 전북이 강점을 가진 농업·농생명 분야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전북을 대한민국의 먹거리 생산기지로 육성하고 스마트팜, 농산물 가공·유통 등으로 산업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III 회의 사진



활동계획(안) 채택, 집행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제2차 회의)